

'타임캡슐 음악다방 콘서트' 개최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28일 음악 통해 젊은 시절 추억 회상 '시니어 위한 특별한 공연' 진행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꽃을 피워드리는 문화공간 '이룸'에서 28일 저녁 7시 30분에 '시니어를 위한 타임캡슐-음악다방' 공연이 열린다.

다방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콘서트인 '타임캡슐 음악다방 콘서트'를 기획하여 시니어들 뿐 아니라 전 연령층과 함께 추억 속의 음악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캡슐 음악다방 콘서트는 지난 시대의 히트곡들을 선정하여 콘서트를 연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추억하는 음악에 다시 한번 빠져들 수 있으며, 그때의 감성과 기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객들의 추억을 불러일으켜주는 '정훈희 꽃밭에서', '이선희 눈이내리네', '이수미 여고시절', 'Frank Sinatra My Way' 등 전주만 들어도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커피향기 나는 음악들과 그때 그 시절 그 음악들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참석자들에게 70년대 분위기와 음악의 향



'시니어를 위한 타임캡슐-음악다방' 포스터

수를 떠올리며 특별한 경험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콘서트는 글마음 조각가 김정배 교수의 '다방'에 대한 다양한 의

미와 유래, 변천에 관한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음악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즈기타리스트 이상욱, 콘트라베이스 정효준, 드럼 정명준, 바이올린 신이나, 색소폰 김경민, 보컬 이수연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시니어들은 나이와 상관 없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을 통해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청춘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공간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음악의 마법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힘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음악공연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많은 관객분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타임캡슐 음악다방 콘서트는 28일 저녁 7시 30분 문화공간이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예매 및 관련 문의는 전화(063-223-5323)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인연, 흠으로 빛다' 나운채 조형도예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전시관에서 26일까지 진행

무주군은 '나운채 조형도예전'이 오는 26일까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전시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무주관광의 질을 보다 운택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나운채 작가가 지난 2년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직접 빛은 작품으로 관계와 연결을 주제로 한 도예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나운채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무수한 인연을 흠 작품으로 표현을 해왔다"며 "이번 전시, 그 안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지친 일상에 편안한 위안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나운채 작가는 '나도공방, 도예터 지지굴, 무주도예원' 등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조형도예를 연구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6명(최원 서양화, 이호영 서예, 이윤승 사진, 신환두 한국화, 양규준 서양화, 나운채 도예)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맑은고



독' 전(展)도 전주 기린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전시회는 이달 30일까지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피어난 '맑은고독' 전(展)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무주군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 폐교된 공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6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업실을 두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이들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한 기획전과 공동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시 청소년과 떠나는 음악여행 장하은 'Wind Again'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의 첫 공연으로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Wind Again'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자 정읍시 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1부는 문화와 함께하는 날 행사(싱얼롱,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가 진행되며 2부에 기타리스트 장하은 초청공연 'wind again'이 진행된다.

국내외 무대에서 수준급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장하은 씨는 이번 공연에서 솔로 및 앙상블 무대를 준비해 정읍시민과 청소년에게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맘껏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 규모는 200명으로, 시민과 청소년들이 선착순으로 입장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백지원 인제양성과정은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소년과 떠나는 음악여행 장하은 'Wind Again' 포스터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문화재단, 공유화음실 정기대관 단체 21일까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공유화음실' 정기대관 단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대관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다. 대상은 전주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회원이다.

재단에 따르면 전주 동문거리에 위치한 '공유화음실'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과 음악 등 문화예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됐다. 또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의용 테이블과 의자, 음향 시설이 있으며, 소규모 그림 전시도 가능하다.

정기대관 단체로 선정되면 대관료는 전액 무료다. 대관 운영시간은 오전대관과 오후대관으로 운영된다. 전일 대관을 신청할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대관 신청할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회원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jicf.or.kr) 공지사항이나, 생활문화팀 담당자(063-287-20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서학예술극장, 무료 기획 공연 시리즈 총 5회 개최

서학예술극장(대표 이여송, 예술감독 이순하)은 우리 소리·멋을 일상에서 만끽할 수 있는 기획 공연 시리즈 '소극장에서 맛나는 전통예술 3탄'을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내 민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개방된다.

이에 따르면 국악 특화 소극장인 서학예술극장은 지난 2021년 개관한 이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에게 존재감을 알리는 등 전복을 대표하는 국악 소극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서학예술극장이 준비한 무료 기획프로그램 시리즈 '소극장에서 맛나는 전통예술 3탄'은 창극, 연희, 산조, 국악실내악, 명인초청의 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여송 대표는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도민에게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악으로 맛나게 차린 소담스러운 한 상을 도민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공연은 서학예술극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342 4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나무컬쳐(natureculture.com, 1522-6278)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서학예술극장 전화(063-231-888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도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도내 예술인의 저작권 관련 교육과, 전산 교육 등 실무

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내 예술인들 대상 선착순 모집이며, 교육 접수 마감은 24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이메일(jb_7447@hanmail.net) 또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